

## 저술목적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마친 바오로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이에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바오로는 로마의 신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을 알리고자 이 편지를 썼다. 이러한 면에서, 그 지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질문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쓰인, 다른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와 큰 차이가 있다.

## 중심 내용

로마서는 모두 16장이다.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교의 특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을 권고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 율법이 아니라 믿음, 죄에 죽고 생명에로(1,1-8,39)

바오로는 먼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불린 사도로 소개한다. 그리고 신앙과 율법을 대조함으로써 하느님의 의(義)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전하고 있다. 하느님의 義는 할례나 율법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믿는 이들 모두를 위한 의(義)이다. 아울러 바오로는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다고 한다. 아담 한 사람에게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속량)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부활하신 그분처럼 생명 안에서 거닐게 된 사람들이다. 바오로는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리라고 하면서 희망을 북돋우고 있다.

### ○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9,1-11,39)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언약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셨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으나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존함으로써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느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으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보고 회개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오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으로 구원이 이방민족에까지 이를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인자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만하지 말며 엄위하신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지 않도록 권고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12,1-16,27)

그리스도에 의해 불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거나 살거나 이미 주님의 것으로 어둠을 벗어버린 빛의 자녀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오로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 이외에는 빛지지 말라고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과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임을 일깨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경하며, 다정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며 주리고 목마른 원수에게조차 먹여 주고 물을 주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같은 사랑 실천에, 성경은 인내와 위로를 주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성령의 능력은 그 희망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바오로의 출생**

바오로의 출생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는 몇 가지 정보 외에 다른 자료가 없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오로는 타르수스 시에서 출생했다(22,3;21,39 참조). 타르수스 시는 바오로의 초기 선교활동의 주 무대였던 킬리키아 지방에 있는 한 도시로서 희랍문화가 상당히 발전했던 도시로 평가된다. 바오로의 그리스적 사고방식과 대화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이 도시에서 길러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바오로가 언제 탄생했는지, 또 그의 부모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자료가 전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오로가 예수님보다 10여 년 늦게 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증언은 바오로 자신의 편지에 나와 있다(로마 11,1; 필리 3,5).

**바오로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다식 이름이고 바오로는 그것의 로마식 이름으로, 처음부터 그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오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스스로를 한 번도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나 바오로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의 이름을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했다가 개종 이후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부터 바오로로 바꾸어 부른다(사도 13,9).

성서적 전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를 때에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다교에만 집착해 있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소명인 이방인 선교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도행전의 저자는 개종전후의 이름을 구분하여 부른 것이라고 본다.